

# 野 “권성동 연설, 책임 떠넘기기 일관… 여당 포기 선언문”

## 민주·조국혁신당 “궤변·변명 뿐” 국힘 교섭단체 대표연설 비판

더불어민주당은 11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대해 “오직 궤변, 가짜뉴스, 변명으로 점철된 여당 포기 선언문”이라고 직격했다.

민주당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내란 사태에 진심 어린 반성이 없다. 여당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민생과 경제 살리기에 대한 책임감이 없다”며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 대한 욕설과 비난만 난무했다. 상대에 대한 책임 떠넘기기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또 “권 원내대표의 주장처럼 윤석열이 그렇게 대통령 노릇을 잘했다면 대체 왜 지금 개혁을 주장하나. 민주당 정권 15년 동안 단 한 번도 흔들림이 없었던 한미동맹은 왜 들먹이냐”라고 반문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국정농단과 내란 사태로 인한 민주주의의 후퇴, 민생 파탄이라는 본질을 흐리기 위한 꼼수”라며 “권 원내대표의 연설을 보면 마치 민주당이 여당이고 이 대표가 대통령이었다 것처럼 보인다. 자신들의 씻을 수 없는 역사적 과오를 인정하지 않고 모든 것을 야당 대표에게 뒤집어씌

우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생경제는 안중에도 없고 민주당 죽이기 이재명 죽이기를 위해 존재하는 정당이 국민의힘”이라며 “내란수괴 윤석열의 방탄을 위해 내란에 동조하는 위헌 세력, 내란 선동과 가짜뉴스 말고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불안 조정 세력, 정치를 갈등과 대립으로 몰아가는 국민 분열 세력이 국민의힘의 본모습”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한 줌도 안 되는 극우 내란 동조 세력의 지지를 옹호해 끝내 반성과 사과 없이 윤석열 지키기에만 매달린다면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국민을 두려워 하라”고 덧붙였다.

조국혁신당도 권 원내대표의 연설을 혹평했다.

혁신당 김보협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여당의 원내대표라면 당연히 현재의 위기를 진단하고 해법을 제시해야 했지만, 권 원내대표는 오로지 민주당 탓, ‘이재명 일당’ 탓, 문재인 정부 탓뿐이었다”며 “현재 대한민국 정부와 국정운영의 공동 운명체인 여당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야6당 의원들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명태군 특검법을 접수하고 있다. 왼쪽부터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 명태군 게이트 진상조사단장을 맡은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조국혁신당 정춘생 원내수석부대표,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사진공동취재단>

## 여야정 국정협의회 실무협의 ‘빈손’ 종료

### 반도체법·추경 이견

여야는 11일 ‘여·야·정 국정협의회’에서 다룬 의제를 조율하기 위한 실무 협의를 진행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비공개 회담에서 반도체 특별법 처리와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등

을 논의했다. 특히 여야는 반도체 특별법의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적용’ 여부를 두고 접점을 찾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특별법에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의 주 52시간 근로 예외 조항을 명시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근로 예외 문제는 특별법에서 제외하고 여야가 합의한 산업 지원 내용 위주로 특별법을 통과시키자고 맞서고 있다. 추경 편성을 두고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연합뉴스

### 여의도 브리핑

## 안도걸 “추경에 상생소비지원금 도입 필요”

더불어민주당 안도걸(광주 동남구) 국회의원이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민간소비 촉진 방안을 제안했다. 안 의원은 지난 10일 열린 기획재정부위원회 정책조정위에서 상생소비지원금 2조원, 지역화폐활인 2조원 등 총 4조원의 재정 투입을 통한 민간소비 촉진 방안 등을 제시했다.

상생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 사업은 코로나 19 상황으로 침체한 소비를 활성화하고, 서민경제 및 골목상권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2021년 9월 2차 추경에서 도입된 바 있다.

월간 카드 사용액이 전분기 사용액보다 3% 이상 증가 시, 초과분의 10%를 캐시백으로 환급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2분기 월평균 사용액이 100만 원이고 카드사용액이 153만 원인 경우, 3%를 제외한 50만 원의 10%인 5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이



다. 1인당 월별 10만 원 한도로 2개월간 지급했다.

당시 2개월간 총 1566만 명이 참여해 55%인 854만 명이 혜택을 받았고, 총 지원금은 8019억 원에 달했다. 3% 초과분에 대한 10% 캐시백을 감안하면 8조원 이상의 민간소비를 유발한 셈이다.

안 의원은 “상생소비지원금 제도를 이번 추경에서 확대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카드사용액 월 100만 원 미만의 중·저소득층에 대해서는 환급률을 15~20% 정도로 상향하고, 기간은 2개월에서 3~4개월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대통령 부부 국정농단 밝힐 ‘명태군 특검’ 이달내 처리”

###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검찰, 황금폰 확보하고도 수사 안 해”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1일 ‘명태군 특검법’과 관련해 “2월 안에 특검법을 처리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12·3 내란의 전모를 밝히고, 죄를 지었으면 처벌받는다”는 당연한 원칙을 확립하기 위해 명태군 특검법은 불가피하다”면서 “윤석열·김건희 부부가 가담한 여론·선거 조작, 비선 개입, 국정

농단 의혹의 진원지인 ‘명태군 게이트’는 윤석열이 12·3 비상계엄을 자행한 직접적인 원인이자 배경으로 지목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명태군도 ‘윤석열이 황금폰 때문에 쫓아서 계엄을 선포했다’고 주장한다”며 “황금폰에는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갖가지 공천 개입, 국정 농단 의혹의 증거가 담긴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도 했다.

박 원내대표는 “검찰은 핵심 증거인 황금폰을

확보하고도 수사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며 “국민의힘 대선 경선 시기 여론 조작과 정치자금법 위반, 보궐선거와 총선, 지방선거 시기 불법 공천 개입 의혹 무엇보다 하나 시원하게 밝혀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천 개입 의혹에 연루된 정치인 소환도 일절 없었다”며 “세상에 드러나면 안 될 어떤 불법과 잘못이 있길래 내란까지 일으켰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김종인 “국힘, 극우와 같이 가면 희망 없어”

### “집회 참여 옳지 않아…확장성 있는 후보는 한동훈”

국민의힘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11일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지난 8일 대구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한 것과 관련, “국민의힘이 극우 집회에 참여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극우세력은 항상 과거에 집착하는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과 같이 가서는 당에 희망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전 위원장은 “5만 명이 집회를 해서 대단한 성과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대구·경북 지역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배하는 지역 아니겠느냐”며 “그 자체를 가지고 보수가 결집하고, 그것이 대단한 세력처럼 과시하는 것은 판단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김 전 위원장은 또 “국민의힘이 획기적인 변화를 하지 않는 이상 재집권하기는 굉장히 힘들다”며 “지금까지와 같이 막연한 보수만 떠돌아서는

집권이 불가능하다. 현실을 냉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위원장은 조기대선 시 가장 확장성 있는 여당 후보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를 지목하기도 했다. 그는 한 전 대표의 대선 출마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한 전 대표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다”며 “일단 정치에 참여한 이상 자기 나름대로 뜻을 펼치려면 한번 큰 뜻을 품고 무대에 출연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전당대회 당시) 63%라고 하는 절대적인 다수가 한 전 대표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 뿌리가 아직 없어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대선이 조기에 열린다면 어느 후보보다 (국민의힘에서) 한 전 대표가 제일 확장성이 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연합뉴스

경찰청 | 금융감독원 | 생명보험협회 | 손해보험협회

허위 입원하고 보험금 편취해서 여행 다니는 위 조작 군

보험료 상승의 주범

보험금 깎아먹는

기생충이 되지마세요!

가짜환자도 보험사기 공범인 걸 모르는 나 한심 여사

환자를 유인해 크게 한탕 도리는 보험금 편취 조직 사기꾼 브로커